즉시 배포용: 2016 년 9 월 27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통신사와 유틸리티 기업이 사망으로 인한 중도 해지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오늘 통신사와 유틸리티 제공업체가 고객의 사망으로 인한 계약 해지 혹은 중도 취소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픈 뉴욕 시민을 갈취하는 무정하고 부적절한 규정은 가장 못 할 짓입니다. 이런 수수료를 금지하는 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이며 이런 짜증 나는 부담으로부터 상주들을 구할 것입니다."

많은 회사가 중도 해지 수수료를 부과하여 고객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서비스를 사용하게 합니다. 새로운 법안(A.8630A /S.6485-A)에 따르면 유선전화, 핸드폰, TV, 인터넷, 에너지 및 수도 서비스 제공업체는 계약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사망한 고객의 계약 해지 혹은 중도 취소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 법을 어길 시 최대 1,000 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됩니다.

하원의원 Aileen M. Gunth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은 저의 모친 Therese Malone 여사를 기리며 제정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틸리티 회사가 중도 해지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내 가족에게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미 똑같이 당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주지사님이 이 법안에 서명하고 저와 함께 뉴욕 전역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신앙으로 하여 너그럽고 이웃들을 잘 돌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후에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할 것입니다."

상원의원 John Bonacic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이 상식적이고 고객의 처지를 대변한 법안에 서명해주셔서 기쁩니다. 회사가 고인으로부터 중도 해지 혹은 취소 수수료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런 관례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